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St. Paul Chong Ha-Sang Roman Catholic Church



32-15 Parsons Boulevard Flushing, NY 11354
Tel: 718-321-7676 | Fax: 718-321-7005 | Web: StPaulQueens.org | Email: Office@stpaulqueens.org

연중 제16주일

2023년 7월 23일(가해) 2643호

Pastor Rev. Andrew M. Kim
Parochial Vicar Rev. Hee Bong Bernard Nam
 Rev. Hyosick Park
Director of Faith Formation Rev. Joseph R. Veneroso, M.M.
Permanent Deacon Paul M. Chin
 John S. Im
Pastoral Assistants Sr. Mi Jeong Macrina An, OSB
 Sr. Yong Ok Johannes Cho, OSB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주임 신부 김문수 앤드류
보좌 신부 남희봉 벨라도
 박효식 사도요한
보좌 신부 배종섭 요셉
종신 부제 진명 바오로
 임석원 요한
전교수녀 안마크리나 OSB
 조요한네스 OSB
사목 회장 한기남 세례자요한
재정 위원장 홍성우 바오로

입당성가 21번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예물준비성가 219번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영성체성가 156번 **한 말씀만 하소서**
 154번 **주여 어서 오소서**
파견성가 31번 **이 크신 모든 은혜**

입당송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천부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영성체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퀸즈 성당 설립 50주년 기념 - 도전 성경 골든벨

화답송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 다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특전 8시 미사	송 상 민	한 송 전	오 유 나	박 현 숙	Edwin Shin • Audrey Oh • Hyo Yeong Lee
8시 미사	최 해 숙	정 봉 재	한 영 미	정 춘 흥	Stella Park • Aiden Nam • Jacob Lee
9시 30분 미사	Sara Kim	Joseph Kim	Jacob Park	Lucas Yun	Yule Bae • Claire Kim • Lena Bae
11시 미사	신 태 경	김 중 삼	김 디 나	김 재 국	Ryan Kim • Vincent Ro • Andrew Choe
5시 미사	문 소 영	이 미 첼	김 남 효	양 예 린	전가별 • 박여원 • 박지윤



사 목 단 상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은 연중 제16주일로 7월도 하순으로 접어들습니다. 7월이 가면 장마철같이 날씨도 따라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높은 습도가 주는 불편함이 이만저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불편함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본당 설립 50주년을 행사의 하나로 ‘성경 골든벨’이라는 퀴즈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참가자와 응원하는 신자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퀴즈를 풀어가면서 긴장감과 성취감의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어떤 문제는 재미로, 어떤 문제는 교회 상식으로, 재미를 더해 갔는데, 마지막까지 남은 두 팀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쓰는 주관식 문제였는데, 이를 아주 정확하게 맞춘 팀이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참가들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동안 긴장감과 재미가 어느 퀴즈쇼를 보는 것보다도 흥미진진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참가 상품을 받고, 응원하던 관중이 행운상을 받는 것은 기쁨을 더하는 덤이었습니다.

Koinonia(코이노니아)는 그리스어로 ‘동료 의식’ 또는 ‘공동체 친교’ 등의 뜻을 가지며, 이는 나눔과 친밀함, 함께 참여하는 일치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나아가 성체 성사를 통한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서의 일치된 형제적 공동체를 말합니다. 즉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이익집단이 아닌 그 자체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함께 숨 쉬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로 각자 다른 개성이 모여 하나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다양성과 일치의 공동체입니다.

이는 교회의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처럼, 각자 다른 색깔과 다른 모양의 유리 조각들이 모여 서로 다른 빛을 통과시키며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의 다양성은 서로 다른 모습과 다른 색깔의 성격이 모여 예수님의 빛을 통과시키면, 하나의 커다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지난 주일 ‘성경 골든벨’을 통하여 진정한 코이노니아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둘이 한 조가 되어 참가한 참가자와 관중과 봉사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쉬움의 한숨과 기쁨의 함성이 모두 아름다운 시가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이렇듯 행복은 아주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물질적

풍요가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과유불급(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으로 행복의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행복은 함께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나눌 때 자연스레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뿌듯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이고, 이를 통해 스테인드글라스처럼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는 또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올해 50주년을 맞아 기쁘고 행복한 이유입니다.

하느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는 이가 많습니다. 그런 이가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빛은 보이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을 보이게 할 뿐입니다. 세상의 사물을 밝게 보면, 우리는 빛이 거기에 있음을 압니다. 빛을 볼 수 있을 때는 어둠을 뚫고 세상을 드러낼 때입니다. 그리고 빛의 아름다움은 비가 그치고 햇살이 드러날 때 하늘을 수 놓는 무지개입니다.

그런데도 “하느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고 하느님을 불신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완전한 권능이 불신을 받을 때에만 당신께서는 힘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아는 이들에게는 오만한 자세를 질책하십니다.” (지혜서 12 : 17)

하느님을 불신하는 사람의 문제는 어둠 속에서 빛이 없다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여명이 가까이 있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알더라도 이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가슴 졸이는 사람은 이내 지쳐서 여명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기다리며 기도 해야 합니다. 빛의 은총을 감사하며 어둠을 이겨내고 빛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혼자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어둠 속에서도 함께 더불어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빛은 우리 이웃을 통해 주변을 밝혀줍니다. 이웃이 등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공동체, 코이노니아입니다.

또한 지혜서의 말씀대로 오만한 자세를 질책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남을 심판하는 이들을 질책하십니다. 하느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루려는 오만을 질책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자비입니다. 스스로 자비로운 것처럼 이웃에게도 자비로울 때, 하느님은 바로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자비의 행복은 잔잔하면서도 오래 갑니다. 한여름의 소



나기처럼 느닷없이 왔다 가는 짧은 행복이 아니라 잔잔하고 꾸준히 우리의 가슴을 뚫듯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이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주고, 어둠 속에서 여명을 기다리는 희망을 줍니다.

악마는 짧고 강렬한 행복감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이 달콤해 보이지만, 그 뒤의 함정을 보지 못합니다. 그 유혹에 빠지면 무지개를 잡으려 온 세상을 해매는 사람처럼 삶을 헛되이 살게 됩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식구들까지 고난 속으로 빠뜨립니다. 이러한 삶이 마치 좋은 밭에서 자라나는 가라지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참조 마태오 13 : 24-43)

악마의 유혹에는 강렬한 기쁨 속에 오만과 편견이 있지만, 짧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한 불안한 행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을 지키려 고군분투하지만, 더욱 외로워질 뿐입니다.

하느님의 행복은 강렬할 때도 있지만 대개 한 여름의 미풍처럼 잔잔하게 찾아옵니다. 미풍은 잠시 땀을 식혀주며 무더위를 이기게 해줍니다. 미풍은 무더위를 피하기보다 오히려 무더위를 견디며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악마의 유혹과 다른 하느님의 행복입니다. 하느님의 행복에는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미풍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는 여름이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에어컨 바람만 쐬며 집안에서 꼼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매일 가을이 언제 오나 기다리며 목만 길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풍의 행복을 아는 이는 여름의 무더위가 힘들지만, 그 아름다움도 함께 만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름은 여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면 삶이 무료해집니다. 지겨워집니다. 답답해집니다. 희망이 없어집니다. 지루한 기다림만 있을 뿐입니다.

하느님의 희망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희망의 기다림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설렘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오늘 최선을 다하며 내일을 준비할 때 설렘으로 드러납니다.

농부가 땅에 뿌린 좋은 씨앗이 자라서 많은 수확을 얻게 하기 위해서 김매며 밭을 가꾸는 노고를 감내하며 단비에 감사하고 따가운 햇빛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가오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씨뿌리는 농부가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13 : 37) 그리고 밭에는 언제나 가라지가 자라는데 이를 뿌린 원수가 악마라는 것입니다. (39)

오늘 복음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고 가꾸지만, 악마가 뿌린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농부는 밭에 가라지가 싹이 트고 자

랄 때, 김매며 미리 정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확 때까지 그냥 놔둔다고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농부의 일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옛 밀 농사는 고랑을 파고 파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갈아 흙을 부드럽게 한 다음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밀이 요즘처럼 고랑 따라 줄 서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밭에 들어가 밀과 비슷한 가라지를 뽑으려 하면 성한 밀을 뽑기도 하고 부러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확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않고 기다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좋은 씨앗에서 자란 밀이 가라지 때문에 비록 수확이 적어지더라도 하나도 죽이지 않으려는 농부의 마음을 잘 드러냅니다.

하늘나라의 자녀를 악마가 뿌린 가라지 때문에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는 하느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즘 산업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집종과 선택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처럼, 가라지를 뽑다 성한 밀을 다칠까 가라지를 내버려 두고 수확 때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하늘나라의 자녀를 하나도 잃지 않으려는 자비에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나라의 자녀를 희생시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자녀에게 부활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성체로 다가오십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어 오십니다. 이를 받아먹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거룩한 지체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랑의 일치로 이루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가라지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좋은 씨앗에서 자라난 밀은 좋은 농부인 예수님의 보호 아래 사랑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수확을 기다립니다. 백 배, 예순 배, 서른 배…… 서로 다르지만, 많은 수확을 기다리며 오늘을 인내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마태오 13 : 40-43)

넷째 주일 (7월)

연중 제16주일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입니다. 교회는 주일마다 함께 모여 주님의 파스카를 기념합니다. 말씀과 생명의 빵 안에 계시는 성자를 알아 뵙고, 그분을 참된 예언자요 목자로 모시어, 영원한 기쁨의 샘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헌금

7월 23일(오늘) Annual Catholic Appeal

유아세례

8월 6일(일) 12:30 p.m. 성전
유아 세례자는 20분전까지 성전으로 모입니다.

첫금요일 신심행사

일시 : 8월 4일(금) 8 p.m. 미사와 성시간
미사 후 성당 친교실에서 아가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모집

초·중·고등부 주일학교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퀵스 성당 설립 50주년 도전 성경 골든벨 결과

- 1등(골든벨) : 문소피아 소피아 / 고선영 소화테레사
- 2등 : 김은자 율리안나 / 이재명 안젤로
- 3등(공동) : 박윤용 노엘 / 박명선 도미나
 - 정혜숙 엘리사벳 / 이정화 캐롤리나
 - 문소영 릴라안 / 박여원 마리아
 - 송명화 도로테아 / 최안나 안나
 - 권금정 모니카 / 심명혜 체칠리아
 - 이세정 글라라 / 윤금숙 요셉피나
 - 한영숙 엘리사벳 / 박성원 요셉
 - 안창호 이삭 / 권영옥 벨라뎃다

협찬 : 중앙장 의사 \$1,000
고경현 통증병원 \$500
예인한의원 명품 공진단 8박스
이 행사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림

여름 특강

일시 : 8월 13일(일) 1 p.m. - 3 p.m.
장소 : 성전
제목 : 슬기로운 신앙생활—철학편
임정현 신부님의 강의로 8월 여름 특강이 전신자 대상으로 있습니다. 슬기로운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될 이번 여름 특강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엘리사벳 모임

날짜: 8월 24일(목)부터 (장소: 성전)
매주 목요일 10 a.m. (매달 첫 목요일 제외)
문의 : 흥 데레사 (917) 843-7676
노년층을 위한 기도모임입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부고

1월 1일(일)부터 7월 23일(오늘)까지의 부고입니다. 세상을 떠난 형제님과 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은(정)종덕 아네스 (1월 9일)
김영옥 안드레아 (1월 14일)
최태영 요셉 (1월 15일)
김현택 마리아 (1월 24일)
김(이)계경 엘리사벳 (1월 24일)
이용희 데레사 (1월 26일)
이성준 프란치스코 (2월 6일)
김경숙 비비안나 (2월 12일)
손유제 요셉 (3월 6일)
오순현 도밍고 (3월 19일)
홍종칠 헬레나 (3월 31일)
최복녀 모니카 (4월 21일)
박(김)문수 안나 (5월 14일)
천(김)혜숙 레지나 (6월 3일)
김선환 시몬 (6월 8일)
이희주 베드로 (6월 12일)
박한춘 요셉 (6월 27일)
윤영백 모세 (7월 19일)

알림

노인 아파트 신청에 대한 세미나

일시 : 8월 6일(일) 12:30 p.m.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1층 세미나실)
강사 : 김종옥 사회 복지사
문의 : 홍성우 베드로 (516) 244—3571

한국학교

한국학교 2023-2024학년도 1학기 등록

대상: 만 3.5세(2020년 1월 1일 이전 출생) ~ 12학년
개학일시: 2023년 9월 9일(토) 오전 9시
등록기간: 8월 6일, 13일, 20일(일)
등록시간: 오전 10:30 a.m. ~ 12:30 p.m.
등록장소: 교육관 교무실
등록비: 학생 1명 \$250, 2명 \$480, 3명 이상 \$500
문의: 최유승 마태오 (교장) (917) 683-4216,
박요한 신부님 (718) 551-8085
등록은 8월 20일(일)까지만 받습니다.
등록 마감일 이후에는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등록은 보호자(학부모님)이 직접 오셔서 하셔야 합니다.
신입생 접수시 반 배정 시험을 봅니다. (학생 반드시 동반)

한국학교 유아반 교사 모집

대상반 : 유아반 (새싹반 & 나팔꽃반)
학생 구성 :
◆ 새싹반 : 만3.5세이상의 신입생 10명
(보조교사 2명이 보조)
◆ 나팔꽃반 : 1학년—2학년
(보조교사 2명이 보조)
개학일시 : 9월 9일(토)
수업일수 : 9월 9일(토)—12월 16일(토) 14주간
9 a.m.—1 p.m. 매주 토요일 4시간
교사 자격: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대학생 이상의 성인 남녀 (대졸자),
유치원이나 어린 아이들 교육 경험자 선호
문의 : 교장 최유승 마태오 (917) 683-4216

알림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일시 : 7월 23일(오늘)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2교실)

성물 서적 판매

일시 : 7월 23일(오늘) 9 a.m.—12:30 p.m.

신입 복사 스케줄

첫 모임 : 8월 6일(일) 10:30 a.m.
연습날짜 : 8월 19일(토), 26일(토),
9월 2일(토), 9일(토), 16일(토)
입단일 : 9월 24일(일)

2023 제14차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팀

2023 제14차 볼리비아 청소년 선교팀은 지난 모금 활동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정성을 가지고 지난 6월25(일)일부터 7월8일(토)까지 인솔 사제 박효식 사도요한 신부와 3명의 봉사자 그리고 11명의 청소년과 함께 볼리비아에 가서 집의 60%를 완성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은 40%는 내년 미션 기간에 완성될 계획입니다. 여기QR코드를 통해 저희의 2주 미션 활동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연령회 바베큐 파티

일시 : 8월 6일(일) 12:30 p.m.
장소 : 사제관 앞 파빌리온

로사리오회 블루베리 판매

농장 직송 달콤한 블루베리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로사리오회 빈병 수거

로사리오회에서 빈병을 수거합니다. 로사리오회 데스크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백운택 어거스틴 신부 Renewal 청년피정
 일시 : 8월 11일(금) 7 p.m. - 8월 13일(일) 3 p.m.
 장소 : 뉴튼 수도원 (St. Paul Abbeys, Newton, NJ)
 대상 : 21-35살
 신청 및 홈페이지 : RYCReborn.org
 신청 마감 : 8월 4일(금)
 가격 : \$250
 문의 : (732) 687-4721

생활 상담

생활 상담소

7월 23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봉사임원	정재연, 김진배, 김준수	
7월 23일	이민 법률 일반 법률 혼인 장애 해소 용자 한방 의료 노인 복지 가정의학 세무(전화상담) 장례상담(전화상담)	조진동 변호사 오미나 변호사 진명부제 한미카톨릭연방신협 박인숙 한의학 박사 류철원 뉴욕시 노인국 근무 탁아름 임상전문간호사 이준석 공인 회계사(718)213-8877 한응호 공인 장례사 (718) 404-5252
문의	생활상담소 소장: 홍성우 베드로 (516)244-3571	

우리의 정성

지난 주 우리의 정성		
교무금	\$ 7,020	
주일 헌금	\$ 7,922	
특별 헌금	\$ 0	
감사 헌금 (0명)	\$ 0	
총액	\$ 14,942	온라인 헌금
북주기도 100만단		
7월 9일(일) - 7월 15일(토)	19,707 단	
누적 봉헌 단수	총 890,545 단	

알림



꾸리아 평의회

날짜 : 7월 23일(일) 1 p.m.
 기적의 매달 성모 꾸리아 : 성당 친교실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 성전

요셉회 월례회

7월과 8월에는 월례회와 성당 주변 청소는 쉽니다.

안나회 월례회

8월에 월례회는 없습니다.

연령회 월례회

7월과 8월 월례회는 없습니다.

특별헌금

안나회에서 \$10,000 특별헌금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사 봉헌

7/17 (월) 안마크리나 수녀님 영명 축일 축하 미사 (김덕순 데레사)
 김진출 베드로 생일 축하 미사 (김혜경 데레사)
 김진출 베드로 건강 기원 미사 (김혜경 데레사)
 손민서 엘리사벳 생일 축하 미사 (손영신 헬레나)
 홍종칠 헬레나 영혼 안식 연미사 (임선희 세레나)
 김선환 시몬 영원한 안식 연미사 (송상민 루시아)
 김금옥 누갈따, 김제방 마태오, 김원채 분도, 김금진 루시아, 방정숙 마리아 연미사 (익명)
 기일 이영수 영원한 안식 연미사 (이준석 태르시오)
 김선환 시몬 영원한 안식 연미사 (가족)
 이희순 데레사 영혼 안식 연미사 (손영신 헬레나)

7/18 (화) 김재은 안나 생일 감사 미사 (부모)
 손자 오새일 생일 감사 미사 (김길우 베로니카)
 홍종칠 헬레나 영혼 안식 연미사 (임선희 세레나)
 김금옥 누갈따, 김제방 마태오, 김원채 분도, 김금진 루시아, 방정숙 마리아 연미사 (익명)
 조요셉, 황말지나 영혼 안식 연미사 (조 루시아)
 김선환 시몬 영원한 안식 연미사 (가족)

7/19 (수) 안마크리나 수녀님 영명축일 축하 미사 (사목회), (안나회), (성소후원회), (간호사회), (로사리오회), (효주회), (연령회), (울뜨레야), (한울림 성가대), (꽃팀), (베이사이드 5반), (박광옥 안젤라), (최 안나), (조은경 막달레나), (차 카타리나, 오 데레사), (임재경 바오로, 로사), (최 로오렌스, 세실리아), (베로니카), (고낙운 말다),

- 7/19 (수)** 김순일 마리스텔라 영명 축일 축하 미사 (후러싱 1구역 1반)
 유현덕 빠른 건강회복 기원 미사 (최 아네스)
 조영옥 요한네스 수녀님 미사 (고낙운 말다)
 홍종칠 헬레나 영혼 안식 연미사 (임선희 세레나)
 이종남 시몬 영혼 안식 연미사 (윤 다니엘 가족)
 윤대규 영원한 안식 연미사 (윤정애 마리아)
 김선환 시몬 영원한 안식 연미사 (가족)
 기일 황미자 영원한 안식 연미사 (안 토마스, 베로니카)
- 7/20 (목)** 안나회원 마가렛 본명 축일 미사 (안나회)
 아영, 우영, 에릭 자녀들 감사 미사 (최 로렌스, 세실리아)
 브린, 가비 외손녀들 감사 미사 (최 로렌스, 세실리아)
 김선환 말따 영원한 안식 연미사 (백정환 수산나)
 이수정 크리스티나 영원한 안식 연미사 (이재만 미카엘 가정)
 구애옥 논나 영원한 안식 연미사 (김미카엘 가족)
 유지홍 요셉 영원한 안식 연미사 (신 카타리나)
 김선환 시몬 영원한 안식 연미사 (가족)
 조동석 모세, 조복생 모니카 영원한 안식 연미사 (박 규용 리타)
 홍종칠 헬레나 영혼 안식 연미사 (임선희 세레나)
- 7/21 (금)** 김상균 다니엘 신부님 영명 축일 미사 (익명)
 김길우 베로니카 수술 성공 기원 미사 (김길우 베로니카)
 이병은 마리스텔라 영육 건강 미사 (박병희)
 Lee Jacob 영육 건강 미사 (박병희)
 박문종 마태오 영육 건강 미사 (박병희)
 박기준 미카엘 영육 건강 미사 (박병희)
 설수진 세레나 건강 기원 미사 (익명)
 김 다니엘 감사 미사 (가족)
 홍종칠 헬레나 영혼 안식 연미사 (임선희 세레나)
 정의숙 Helena 영혼 안식 연미사 (손 Agnes, Francisco)
 김선환 시몬 영원한 안식 연미사 (가족)
 김복희 발렌티나 영혼 안식 연미사 (친구)
 이화정 페브로니아 영혼 안식 연미사 (가족)
 이영자 마리안나 영혼 안식 연미사 (가족)
- 7/22 (토)** 안나회원 마리아 막달레나 본명 축일 미사 (안나회)
 김 앤드류신부님 영육 건강 미사 (젤리노)
 박 사도요한 신부님 영육 건강 미사 (젤리노)
 고금숙 막달레나 건강 회복 기원 미사 (레지오 친구들)
 조은경 막달레나 영명 축일 축하 미사 (이재환 에스더)
 홍종칠 헬레나 영혼 안식 연미사 (임선희 세레나)
 김선환 시몬 영원한 안식 연미사 (가족)
 송은미 데레사 영원한 안식 연미사 (정제, 정아가족)
 김숙가 세실리아 영원한 안식 연미사 (김대웅 바오로)
 배원식 할아버지 영원한 안식 연미사 (배태분 데레사)
 서명이 할머니 영원한 안식 연미사 (배태분 데레사)
 이향이 할머니 영원한 안식 연미사 (배태분 데레사)
 오유석 안드레스 미사 (오유나 제니퍼)
 최 로렌스, 세실리아 가정 미사 (대모 구크리스티나)
 이정옥 아네스 영혼안식 연미사 (홍정성)
- 7/23 (일)** 안마크리나 수녀님 영명축일 축하 미사 (복사단), (어머니 연합회)
 신원진 베네딕도, 한진희 아네스 영육건강 미사 (신 엘리사벳)
 신우진 첼레시티노, 김정연 미카엘라 영육건강 미사 (신 엘리사벳)
 이한결, 주원 생일 미사 (이건우 갈리스또)
 정창용 다테오 신부님 건강 기원 미사 (강 도로테아)
 임수빈 글라라 세계 청년 대회 참가 감사 미사 (박혜정 소피아)
 박미셀 미카엘라 세계 청년 대회 참가 감사 미사 (박혜정 소피아)
 오유나 제니퍼 세계 청년 대회 참가 감사 미사 (박혜정 소피아)
 강 도로테아, 요한 미사 (가족)
 김은혜 게라피나 건강 기원 미사 (강 스킨라스티카)
 유현덕 빠른 건강 회복 기원 미사 (최 아네스)
 김영 유스토 빠른 건강 회복 기원 미사 (최 아네스)
 연경실 로사 영육 건강 미사 (이은실 마리아)
 임옥순 안나 영육 건강 미사 (후러싱 2구역 1반)
 최원분 테클라 영육 건강 미사 (후러싱 2구역 1반)
 안창호 이삭 건강기원 미사 (한울림 성가대)
 김인자 벨라렛다 영원한 안식 연미사 (김승진 데미안)
 이희주 베드로 영원한 안식 연미사 (이영숙 요안나)
 김선환 시몬 영원한 안식 연미사 (정선진 에밀리아나)
 홍종칠 헬레나 영혼 안식 연미사 (임선희 세레나)
 이홍윤 영원한 안식 연미사 (이봉자 모니카)
 양덕순 헬레나 영원한 안식 연미사 (김수현 세레나)
 최옥희 발바라 영원한 안식 연미사 (최영섭 찰스)
 송재동 발렌티노 영혼 안식 연미사 (송혜경 데레사)
 송희동 요셉 영혼 안식 연미사 (송혜경 데레사)
 김선환 시몬 영원한 안식 연미사 (가족)
 이영희 안나 영혼 안식 연미사 (가족)
 김은미 데레사 영원한 안식 연미사 (가족)
 윤성 알베르토 영원한 안식 연미사 (윤은태 제니퍼)
 윤영백 모세 영원한 안식 연미사 (윤테레사 가족)
 윤영백 모세 영원한 안식 연미사 (정영현 끌레멘스 가족)
 Brendan Ronan 건강 기원 미사 (이정옥 아이린)
 김정호 아가다 영원한 안식 연미사 (김민우 요한)
 공 프란체스카 영혼 안식 연미사 (가족)
 이훈민 영혼 안식 연미사 (이 임마누엘)
 임재규 레오 생일, 가정을 위한 미사 (임재경 바오로, 로사)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지면 사정에 따라 미사 지향의 글씨 크기가 바뀔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가지에 깃들인다.
 마태오 13, 31



PGA
Danny Choi
골프 레슨
 미PGA 정회원 프로와 함께 배우는 개인교습
 성인 및 주니어 골프 레슨 상담 환영
718-757-2295
 Spring Rock Golf Center
 377 Denton Ave New Hyde Park

넌 짜장 난 짜볶
순 한국식 중화요리
이 벨라도
718-225-1210
 201-07 Northern
 대.소 연인식 원미 가라오케 원미

다보안경원
최고의 서비스
(성당 신자분 우대)
718-321-1212
 (Kissen 지점)
718-358-9595
 (Union지점)

NATIONAL FINANCIAL LITERACY CAMPAIGN
장례보험
 아름다운 삶의 마지막 마무리
오 데이비드
718 • 908 • 0733

St. Paul
 YEWON ART SCHOOL
성 바오로
예원아트 스튜디오
 입시반 · 취미반 · 어린이반 · 중 고등부반
오 미카엘라
718.908.0623

DUO USA
결혼해듀오

 Tel. 201-947-2525 (NY)

유니온 약국
2호점
 처방 / 픽업 / 배달
 박병수 레오
 약사 신안순 레오니아
(347)438-1400
 194-06 Northern Blvd

숯불로 구워먹는
산수갑산2
 SAN SOO KAP SAN
718-445-4850
 170-10 Northern Blvd

글로벌 애터미
 atom美안앤다(미리아)
 건강기능식품 · 화장품 · 생필품
 (절대 품질 · 절대 가격)
 개인 / 단체 선물 상담
917-930-1065

골프 아카데미
 초보부터 싱글까지
양만석 스타파노
718-316-2486

제일장 의사
대표-한응호
 유가족이 원하시는
 곳에서 **제일**의
가격과 섬김
 24시간 상담 사무실
 (베이스айд 삼원막 건너편)
 4514 Springfield Blvd
 Bayside, NY 11361
(718)
404-5252

일우세무회계
 비즈니스 설립 및 운영상담
 개인 및 법인 세금보고
 세무 공문, Notice 처리
 회계사 이준석 터키시오
646-681-1110

BODY LINE DESIGN
 신기한 카타리나
 뉴욕 한인 최초
 자이로토닉 강사
 필라테스/스트레칭
 발레(Barre)
 자이로토닉
718.799.0243

MIDAS REALTY
미다스 부동산
718-353-9300
 163-07 Depot Road
 Flusing, NY 11358
 Tina Kim(티나 김)
718-344-0085
 Song Hee Han(한승희)
917-572-1562

62세이상신청
노인아파트
장애인 아파트
국제통역원(번역)
 James Lee 벨라도
(718) 353-8763

리셉션 하우스
Once in a life time!
 영원히 기억될 격조 높은 연회장
 결혼식, Corporate Party, 돌, 각종 파티
(718) 445-1244

New Millennium BANK
 대출: SBA, 홈, 건축, 건물론
 예금: 체크, 세이빙, CD
 미니마켓, 적금
BAYSIDE BRANCH
 209-25 Northern Blvd #101
347-836-4914

대림 세무 회계, 부동산
 세금보고 절세, 노후설계
 부동산 매매
 (집, 상가, 콘도, 렌트)
 생명보험, 연금, 메디케어
 루카림 718-791-0457

Mina Oh
 Law Office of Mina Oh
변호사
오미나 안젤라
부동산·상법 전문
(718)717-9774
 minaoheq@gmail.com

GOOD DAY
통증 병원
김태진 마르크
 KIM, TAE JIN PT, DPT, LAC
원장이 직접 치료
(929) 373-5772
 199-04 47th Ave Apt1 11358

Amway 암웨이
 정수기 ■ 공기청정기
 건강냄비 ■ 비타민
 화장품 ■ 생활용품 등..
718.578.9074
 ■바로고 신속한제품전달가능

그레이스 패션 세일
 25년 모든 고객 분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매장에서 세일 진행 중입니다.
162-02 Crocheron Ave 2층(독도야 건너편)
917-572-1800 (한테레사)

신성호 건축사
194-02 노던 2층
(718) 428-2882

최윤승변호사
이민법 / 상법
부동산법
(718)460-2512
36-26 Union St. Suite 3F
Flushing, NY 11354

PAUL KO PAIN CLINIC
고경현 통증 병원
고경현 (바오로)
최고의 의료 기술과
최첨단 의료 장비 완료
한양 마트 옆 150PL
718-445-4370

아모레 화장품
ARITAUM
스킨케어
메이퀸·아이래쉬
지영진 만나
(718) 939-2932
39-06 Union Street
Flushing, NY 11354

삼원각
144-20 노던 후러싱
연회석 완비
생일파티, 돌잔치, 회갑연
교회, 각종 모임
(718)445-8500

박노태 가족 한의원
산삼공진단.치매치료 명인
박노태 요셉 / 박인숙 레지나
박상민 요한 / 박상윤 아도보
718-888-1522
165-20 Northern Blvd. 1FL

행복한 가정·가족의 건강
뉴-마트
동양·서양 그로사리
■ 반찬, 음식 ■
■ 고기, 생선 ■
■ 과일, 야채 ■
뉴마트 잔치음식 전문점
718-344-5542
718-428-4748
212-12 Horace Harding
Exp., Bayside, NY 11364

공인회계사 진명
개인 및 법인회계처리
회계감사 / 세무정리
세무신고
(718)445-6400
36-22A Union St #202

이덕규 건축설계
이덕규 시론, 공학박사 건축기술사
건축, 중축, 모든 건축 허가
718-353-8137
153-01 노던 #2C 플러싱

하늘가족
증앙 MEMORIAL
장미의사
대표: 하봉호(아저스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30여년간 Since 1988
최고의禮(예)로
자케드리고 있습니다
뉴욕·뉴저지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대표: 718.353.2424
뉴욕·뉴저지 넓은 파킹장 완비

조진동 변호사
노던154가 체이스 은행쪽
718-353-2699

플러스 약국
PLUS DRUGS
무료주사·바탕/대상포진 예방
각종보험 추첨 각종의료기기
신자분들께 10%할인
박인교보 / 키트 IDplusdrugs
(718) 352-1234
209-31 Northern Blvd

3대째 어어 명품보석상
임보석
GIA 공인명사 임보석이 최고의
명품 보석을 만들어드립니다.
(718) 463-3313
36-24 UNION ST.
WWW.RMSJEWELRY.COM

공보석
고급 셋팅
주인이 직접 세공
(718) 762-6900
39-10 Union 플러싱

초롱 컴퓨터
강석구 그레고리오
컴퓨터 판매 및 수리
프로그램 개발, 핸드폰 수리
감시 카메라 설치
(718)353-0911
40-13 159th St Suite B

이한식제통전문병원
(통증의학 전문의)
중재 통증 의학, 재생의학
신경 차단술 목 허리 디스크
어깨 무릎관절통 좌골신경통
718-224-1600
140-21 32th Ave 플러싱

HOPE AGENCY INC
▶ 메디케어 상담 ◀
■ 사업체 ■ 건물 ■ 주택 ■ 자동차 ■ 생명 ■ 건강
Julius 917-285-0019 Moses 917-403-0031
Agatha 917-403-0051 William 917-324-4402
Insurance Producers • NY NJ CT • 1982
희망보험 718-961-5000

RX 쏘아 약국
(JOA PHARMACY/KIM'S PHARMACY)
각종 의료약 보험 취급
한국가계 최초 유나이티드 보험 취급
건강신발, 모든 의료용품 취급
TEL. 917-563-7502
150-15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대동 연회장 맞은편)

초롱 냉동
냉장고, A/C, 세탁기
건조기 등 출장수리
(상업용/가정용)
718-353-0944
40-13 159th St Suite B

후러싱 꽃집
결혼/생일 축하 꽃
가족행사 화환 화분 장례화환
718-463-9055
147-20A Northern Blvd
www.flushinggardenflorist.com

예인 한의원
명품 공진단
우지섭 다미아노
(718)539-5161
142-36 38th Ave Flushing

코리아나 관광 여행사
비행기 티켓/뉴욕, 나미비아 관광
생지순례/유럽여행/한국관광
(888) 812-7447
(718) 460-9400
141-04 Northern Blvd. 11354

AC 약국
처방조제 / 각종예방접종
OTC카드 / 비타민 / 워커건
강신발 / 맞춤형차량
요실금용품 / 휠체어 / 지팡이
718-886-0060
154-16 NORTHERN BLVD
(노던154가)

안과, 신경과 전문의
전복관 야고보

NYNOS
뉴욕 안과
15814 Northern Blvd,
Ste ML06
718 799 0302

숙녀복, 화장품, 염색약
속옷, 양말, 잠옷
헤카니스
144-22 Northern Blvd
이엘리스벳 718-791-8799
김베드로 718-314-6435
한국/미국 택배

김지아 변호사
상속법 / 노인법
메디케이드 신청
35-14 150th Pl #301
Flushing, NY 11354
(929) 209-5738

아리랑 식당
손으로 직접 만든
칼국수와 수제비
정명희 크리스티나
718-321-0185
41-04 163 Street

K-MUNCHIES
롯데나
핫도그 // 도넛 // 치킨윙
파배기 // Breakfast
김베네딕따 347-331-0908
147-46 Northern Blvd

SIGNATURE
GOLF & FITING
김진성 안드레아
718) 414-9555
Lesson(Screen)/Fitting/
Repair/used club 판매
NewClub구매시Advisor
25-50 Francis Lewis Blvd 쿿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갈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2024년 5월 출발 예정
평생 꿈꾸는 버킷 리스트를 걸을 수
있도록 전 일정을 인솔자가 동행
토마스 여행사 516-462-5817

4th Sunday in July

Friday Mass for July and August

Please be advised there is no Friday evening mass except for the First Friday mass in July and August. There is the First Friday mass on Aug. 4th (Fri) at 8 p.m.

Special Collection

Jul. 23rd (Today) Annual Catholic Appeal

Baptism

Infant Baptism

Date and Time : Aug. 6th (Sun) 12:30 p.m.

Location : Church

Please submit the application with a copy of birth certification to the church office.

First Friday of The Month

Date & Time : Aug. 4th (Fri) 8 p.m.

There is Eucharistic Adoration and Benediction.

RCIA Class

When : every Sunday 10:30 a.m.

Where : Education center Room# 201

Youth Orchestra

For any student who applied to be a member of the youth orchestra and did not receive a phone call, please contact the director, Agnes Kim

Contact : Agnes Kim (917) 566-9094

Fr. Gus Baek Young Adult Renewal Retreat

When: August 11th (7PM) to 13th (3PM)

Where: St Paul Abbeys, Newton, NJ

For: Young Adults ages 21-35

Registration and Info: RYCReborn.org

Deadline: August 4th, 2023

Cost: \$250 total (\$50 deposit to guarantee registration)

Contact : (732) 687-4721

Email : RYCRebornYoungChrist@gmail.com

Reborn Young Christ will reunite the weekend of August 11th to 13th for the first time since 2016. We will aim to reconnect our communities, as well as rediscover our faith following a pandemic. We welcome all Korean Catholics, especially those looking to return to their faith after being away from the church.

Announcements

Sunday School

Seeking for Sunday School Teachers

Our parish is looking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contact us.

Inquiries : Sr. Johannes Cho or

Church office (718) 321-7676

Schedule For Altar Servers

First Meeting : Aug. 6th (Sun) 10:30 a.m.

Practice Date : Aug. 19th (Sat), 26th (Sat),

Sep. 2nd (Sat), 9th (Sat), 16th (Sat)

Joining Date : Sep. 24th (Sun)

Korean School

2023-2024 Korean School (fall Semester) Registration

Student : 3.5 yrs old (born before Jan. 1, 2020) - 12th grade

1st Day of School : Sep. 9th (Sat) 9 a.m.

Registration Period : Aug 6th, 13th, and 20st (Sun)

Time : 10:30 a.m.—12:30 p.m.

Place : Korean School office at Education Center

Tuition : one student-\$250, two students-\$480,
three and more- \$500

Inquiries : Matthew Yu Seung Choi (917) 683-4216

Registration is accepted until Aug. 20th (Sun).

It must be done by a guardian/parent in personal.

Recruitment of Korean School Teacher for Nursery (Sprout Class & Morning Glory Class) Classes

Sprout Class : 10 students (over 3.5 years old)

Morning Glory Class : 1st Grade—2nd Grade

School Start : Sep. 9th (Sat)

Number of Class Days : Sep. 9th (Sat) - Dec. 16th (Sat)

14 weeks 9 a.m.—1 p.m. (4hrs every Saturday)

Teacher Qualification:

Must speak Korean fluently

Able to teach children with love

Kindergarten or early childhood education experience preferred (College graduates)

Inquiries : Matteo Choi (917) 683-4216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July 15th (Sat) is 890,545 decades.

July 9th (Sun) — July 15th (Sat) : 19,707 decades

The Reign of God Is Like A Dandelion

< Six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

By Fr. Joseph Veneroso, M.M.

When I was a child in kindergarten, I remember picking a bouquet of dandelion flowers to give to my girlfriend. I thought they were pretty. She thanked me, even though she thought my gift was strange. Only later did I find out that most Americans consider dandelions weeds. Not only that, they put chemicals on their lawns to kill them. What confused me even more was my parents would drive into the countryside to pick—you guessed it—dandelions. Italians eat the leaves before the flower appears. They make a delicious salad full of vitamins. In addition, they add the greens to soup or sauté them as a side dish. Later I learned that the dandelion is considered a perfect plant. The whole plant can be used. In addition to eating the leaves, the roots make a nutritious probiotic tea. The flowers, in addition to being pretty (at least to five—year—olds!), can be used to make wine. The sticky white sap inside the flower stem removes the itch of insect bites. And children have fun blowing the seeds up into the air. So the lowly dandelion, scorned by many as a vile weed, is in fact a multi-purpose gift from God. Who knew?

It turns out, the Pilgrims brought dandelion seeds with them from Europe to grow as food here in the New World. On its own it spread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In that, the dandelion is like the gospel and the reign of God. It came from overseas with a few people but soon spread. Many at first regard it as a nuisance, but more and more people recognize its value for enriching our lives. Jesus talks about the mystery of good and bad plants growing side by side until the End of the World when God will collect the weeds to be burned, but gather the wheat into a barn. But the dandelion offers a third alternation: maybe a weed is just a plant we haven't discovered a use for yet. Put another way, maybe people we consider useless or undesirable are simply people who haven't yet discovered their purpose in life. Maybe you feel that way sometimes: useless, unwanted, unappreciated. It's up to the rest of us to help you understand your talents and good points so you might blossom to your fullest potential. The reign of God is indeed like the dandelion!

Universal Prayer

- ◆ That the Church be a sacrament of unity, teaching us to be people of trust rooted in faith,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 ◆ That the leaders of our community remember that they are also the stewards of the Lord who must work to guard the quality of our environment, air and water, let us pray to the Lord. ☉
- ◆ That we be ever-mindful of the unemployed and underemployed, and assist them with needed services and care, let us pray to the Lord. ☉
- ◆ That when we greet the underprivileged and the handicapped, remember that when we see them, we see the face of Christ, let us pray to the Lord. ☉
- ◆ For our young adults travelling to their Navajo Mission: that they arrive there safely and may they discover new friendships while doing the Lords will, let us pray to the Lord. ☉
- ◆ That we guard the sanctity of the Eucharist, always seeing it as our summit and source, let us pray to the Lord.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St. Paul Chong Ha-Sang Roman Catholic Church
32-15 Parsons Boulevard Flushing, NY 11354

Tel: 718-321-7676 | Fax: 718-321-7005 | Web: StPaulQueens.org | Email: Office@stpaulqueens.org



16th Sunday in Ordinary Time

July 23, 2023 (Year A) No. 2643

Pastor Rev. Andrew M. Kim

Parochial Vicar Rev. Hee Bong Bernard Nam
Rev. Hyosick John Park

Director of Faith Formation Rev. Joseph R. Veneroso, M.M.

Permanent Deacon Paul M. Chin
John S. Im

Pastoral Assistants Sr. Mi Jeong Macrina An, OSB
Sr. Yong Ok Johannes Cho, OSB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주 임 신 부 김문수 앤드류

보좌 신 부 남희봉 벨라도
박효식 사도요한

보좌 신 부 배중섭 요셉

종신 부 제 진명 바오로
임석원 요한

전교 수녀 안마크리나 OSB
조요한네스 OSB

사목 회 장 한기남 세례자요한

재정 위원장 홍성우 바오로

Entrance Antiphon

See, I have God for my help. The Lord sustains my soul.
I will sacrifice to you with willing heart,
and praise your name, O Lord, for it is good.

First Reading

Wisdom 12:13, 16-19 (106A)

Second Reading

Romans 8:26-27

Gospel Acclamation

- ⊙ Alleluia, alleluia.
- Blessed are you, Father, Lord of heaven and earth; you have revealed to little ones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

Communion Antiphon

The Lord, the gracious, the merciful, has made a memorial of his wonders; he gives food to those who fear him.

Responsorial Psalm

Psalm 86:5-6, 9-10, 15-16

- ⊙ **Lord, you are good and forgiving.**
- you, O LORD, are good and forgiving, abounding in kindness to all who call upon you. Hearken, O LORD, to my prayer and attend to the sound of my pleading. ⊙
- All the nations you have made shall come and worship you, O LORD, and glorify your name. for you are great, and you do wondrous deeds; you alone are God. ⊙
- You, O LORD, are a God merciful and gracious, slow to anger, abounding in kindness and fidelity. Turn toward me, and have pity on me; give your strength to your servant. ⊙



Commemo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Parish — BIBLE GOLDEN-BELL Challenge